



청소년 통일체험 학습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대학 사회내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1982년부터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08년도에는 전국의 대학에서 총 54명이 47편의 논문을 응모하였으며, 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 6편의 입선작을 선정·시상하였다. 수상 작품집은 전국 대학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는 전국의 북한학과 학생들이 참가하는 「북한학과 합동워크숍」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2008년 11월에 개최된 제3회 「북한학과 합동워크숍」에서는 4개 대학, 70여명의 대학생들이 ‘우리시대를 위한 새로운 통일담론의 제시’, ‘남남갈등 분석과 해결방안’,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대북정책 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2008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하나 되는 우리, 함께 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학생 및 시민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통일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 4회를 맞는 「통일문화 페스티벌」은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통일·북한관련 문화행사와 통일교육의 접목을 통해 통일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북한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한 통일문화의 마당이다. 행사 기간중 통일퀴즈왕 선발, 청소년 통일 UCC, 상생공영 4행시 짓기, 통일갤러리, 통일놀이마당, 북한음식체험전, 북한영화 상영, 남북전래동화 구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제4회 통일문화페스티벌(2008.10.30~31)

지역별 통일교육 담당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통일교육 사례·기법을 공유하며 학교통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을 개최해 오고 있다.

2008년에는 ‘새 정부 출범과 통일교육’이라는 대주제 하에 총 5회에 걸쳐 대구, 부산, 인천, 수원, 대전에서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각 지역 교육청 인사 및 초·중·고 통일교육 담당 교사 등 총 2,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여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통일교육원 교수가 남북관계 현안과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 나. 사회통일교육 지원

1987년 제정된 「통일교육전문위원관리규정」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강의능력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를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여론수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8년 12월말 현재 통일교육위원협의회는 중앙 및 16개 시·도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고, 1,148명의 통일교육위원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위원들의 교육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청 연찬교육, 통일대화의 광장(10.15~16, 목포), 구사회주의권 체험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대북정책 동영상 및 책자, 통일신문 등 각종 자료 제공, 지역협의회 주관 세미나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였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통일교육협의회에는 2008년 말 현재 민족통일중앙협의회, 평화문제연구소, 자유총연맹, 경실련통일협회,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95개의 다양한 통일교육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정부는 통일교육협의회 소속단체의 통일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 및 각종 교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통일관련 교육 기회, 시설 및 정보 등 통일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사회에 통일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통일교육 관련 단체, 시설을 대상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전국의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통일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연구소(5개),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 등 단체(5개)를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주체로 지정하였으며, 한 해 동안 총 217회(정기 시민통일강좌, 통일문화 축제 등 70개 사업, 4만 6,614명 교육)의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2009년도부터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통일교육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통일교육센터」가 통일교육위원, 통일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통일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통일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역통일교육 연계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008년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

권역	센터명(소재지)	운영 주체	통일교육 실적
영남(3)	부산(부산)	통일교육위원 부산협의회	6개 사업 (총 24회, 9,650명 참석)
	경남(진주)	통일교육위원 경남협의회	7개 사업 (총 22회, 3,205명 참석)
	대구·경북(대구)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8개 사업 (총 44회, 7,419명 참석)
충청(2)	대전(대전)	(사)대전통일교육협의회	7개사업 (총 21회, 3,088명 참석)
	충남·충북(천안)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8개 사업 (총 16회, 4,280명 참석)
호남(2)	광주·전남(목포)	통일교육위원 전남협의회	7개 사업 (총 9 회, 2,347명 참석)
	전북(전주)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통일교육센터	7개 사업 (총 21 회, 3,870명 참석)
강원(2)	강원 동부(속초)	(재)코리아하나재단 설악수련원	7개 사업 (총 24회, 6,560명 참석)
	강원 서부(춘천)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4개 사업 (총 23회, 1,962명 참석)
제주(1)	제주(제주)	제주대 평화연구소	9개 사업 (총 12회, 4,233명 참석)
합 계	10개		70개 사업 (총 216회, 46,614명 참석)

전국 13개 지역의 통일관은 북한·통일관련 자료 전시와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통일교육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의 미래지향적 통일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청소년층 및 실향민 등을 중심으로 약 300만 명이 통일관을 관람하였으며, 서울지역에는 서울통일관이 새로 개관되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통일교육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일관은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등 13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각종 전시자료, 북한관련 특수자료 및 영상자료 등을 지원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전국 통일관 운영 현황

지 역	통일관	주 소	개관일	운영주체	휴관일
강 원	고 성	강원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통일전망대내)	1988.6.16	(주)고성 통일전망대	연중무휴
	양 구	강원 양구군 해안면 후리 720	1996.8.14	양구군청	월요일
	철 원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 4리 20-1	1990.12.15	철원군청	화요일
수도권	인 천	인천 남구 송의4동 8-7 (자유회관내)	1994.12.15	자유총연맹 (인천지회)	월요일
	오두산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59 (통일전망대내)	1992.9.8	(주)동화진흥	연중무휴
	서 울	서울 구로구 공동 35번지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내	2008.10.29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토, 일
충 청	대 전	대전 유성구 도룡동 3-1 (엑스포 과학 공원내)	2001.8.11	(지방공사)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월요일
	청 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413 (청주랜드내)	1993.2.23	청주랜드관리 사업소	월요일
	충 남	충남 공주시 웅진동 98	2007.4.5	자유총연맹 (충남지회)	월요일
호 남	광 주	광주 서구 화정2동 316-11 (화정근린공원내)	1989.3.10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	월요일
영 남	부 산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회관내)	1989.1.30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연중무휴
	경 남	경남 창원시 웅지동 485 (자유회관내)	1998.4.29	자유총연맹 (경남지회)	일요일
제 주	제 주	제주 제주시 일도 2동 968-2(자유회관내)	1993.12.18	자유총연맹 (제주지회)	일요일

## 5.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008년 정부는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이라는 통일교육의 3대 목표에 부합하면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하였으며, 2008년 한 해 동안 학교·사회 통일교육 기관, 초청 교육생, 자료 요청자 등에게 총 75,688부를 배포하였다. 특히 통일교육 자료의 내용을 객관적·균형적 시각에서 재편하여 통일문제와 북한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였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상생공영정책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였다.

통일·대북정책, 남북관계, 북한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기본교재로 『통일문제이해』와 『북한이해』를 발간하고 있다. 2008년판 『통일문제이해』는 정부의 통일방안 및 대북정책, 통일환경, 남북관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대북정책이 제기된 배경과 정책의 비전, 추진원칙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북한이해』는 북한의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문화·주민생활 등 분야별 실상을 사실적으로 해설하였으며, 최근 북한의 대내외 상황을 추가하고 사진과 도표 등 시각자료를 보완하였다. 이들 기본교재는 정부기관, 각급 학교, 도서관,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1,509개 기관에 보급·활용되었고, 40여 개 대학에서 강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한편, 참고자료로 통일정책·남북관계·북한실상 관련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된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는 2007년에 처음으로 발간하였는데,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에 따라 2008년에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새 정부 대북정책 기초

에 따라 내용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였다.

대북정책은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합의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바,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설명자료를 제작·보급하여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상생공영정책의 비전, 추진원칙, 중점 추진과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표준강의안(PPT)을 일반 성인, 해외동포, 청소년 대상으로 각각 제작하여 대국민 홍보 및 교육활동에 활용하였으며,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영상교육자료(DVD)를 제작하여 민주평통, 사회 통일교육 기관 등에 보급하였다.

북한 실상에 대한 교육자료는 문헌·영상의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되었다. 2003년부터 통일·북한 관련 분야별 전문가가 집필한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강좌’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북한의 체육 실태』, 『북한의 문화재 실태』 등 2종의 ‘주제강좌’를 발간하여 대학 관련학과, 연구기관, 도서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보급하였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라는 일상적인 소재를 북한 영화·드라마 화면,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하루 생활」,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라는 북한바로알기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전국 중·고등학교, 도서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보급하였다. 이러한 영상자료는 계획과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는 북한 주민과 학생들의 일상적 생활과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심화된 경제난으로 인한 직장생활 변화와 학교 수업 파행 등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상을 설명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국민들에 대한 안내교육 자료인 『북한방문 길라잡이』는 2차에 걸쳐 개정 발간되었다. 『북한방문 길라잡이』 1차 개정판은 방북

준비 및 방북 시 유의사항 중심으로 요약본을 제작하여 발간하였다. 2차 개정판은 수록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자료를 최신화하고 기존 내용을 체계화·구체화하였으며, 북한 지역별 체류활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가독성과 휴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책자의 판형과 디자인도 개편하여 이를 방북 예정자와 유관 단체 등에 보급하였다.

방북 안내 영상자료 또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새롭게 제작하였다. 특히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방북 안내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광객용 방북교육 영상자료를 별도로 제작하여 남북출입사무소, 현대아산 등 유관기관에 보급하였다.

2008년에는 재외동포와 장애인 청소년 등 통일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도 시선을 돌려, 이들 계층을 위한 맞춤형 통일교육 자료를 제작하였다. 재외동포 청소년용 교육자료로 2007년 제작한 학교통일교육용 애니메이션 『가자미의 눈물』을 영어판과 일어판의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하였으며, 장애인용 교육자료로는 2007년 제작한 청소년용 통일교육 애니메이션 『혜미의 행복통일한국』 자막·수화 삽입본을 제작하여 전국 특수학교 및 장애인 시설 등에 보급하였다.

한편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통일교육 기본교재 및 전년도에 제작한 만화·애니메이션 등 교육자료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8년도 통일교육원 제작 자료

자 료 명	제작연월	비 고
통일문제이해	2008.7	책자
북한이해	2008.4	책자
북한방문 길라잡이	2008.4	1차 개정판
북한방문 길라잡이	2008.12	2차 개정판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	2008.12	책자
북한의 체육 실태	2008.7	주제강좌 21호
북한의 문화재 실태	2008.12	주제강좌 22호
통일교육소식 7호	2008.7	책자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2008.11	DVD
북한 관광을 위한 방북안내	2008.11	CD/DVD
북한 주민들의 하루 생활	2008.11	DVD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	2008.11	DVD
가자미의 눈물 A Flatfish's Tears	2008.12	DVD
가자미의 눈물 カレイの涙	2008.12	DVD
혜미의 행복통일한국 자막·수화 삽입	2008.6	DVD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2008.5	PPT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일반용)	2008.9	PPT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해외용)	2008.12	PPT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청소년용)	2008.12	PPT